

다문화사회와 원불교의 종교교육*

고 시 용

원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원불교의 관점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에 대하여 정리한 연구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대한 원불교의 교리적 근거로 소태산의 일원주의, 정산의 삼동윤리, 대산의 종교연합운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처처불상(處處佛像)·사사불공(事事佛供), 동포보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 다문화사회의 주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원불교 종교교육의 사례로서 한겨레중·고등학교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은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남북한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반편견적이고, 개방적인 수용의 태도를 갖도록 준비시켜주는 다문화·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과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과정과 내용, 수업방식을 포함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물론이요, 방향성과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둘째 종교교육의 실행을 위한 종교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조직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이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종교교육에서 중시해온 가치·덕목들과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성과의 상호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내용 선정 및 구성을 새롭게 시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넷째 다문화·다종교적 능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종교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핵심 주제어: 다문화사회, 다종교사회, 원불교, 종교교육, 일원주의, 삼동윤리, 종교연합운동, 새터민 청소년, 한겨레중·고등학교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I. 서 언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해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 및 국제결혼, 귀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¹⁾ 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²⁾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세계화 진전과 노동의 국제이동, 난민 증가의 결과로 나타난 다인종사회’라는 의미와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역동성과 속도를 들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990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사회의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가 계속되어 2011년 4월 30일 현재 1,354,414명으로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전년도 동월대비 13.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³⁾ 통계청의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020년 254만 명(총인구 대비 5%), 2050년 409만 명(9.2%)으로 증가하여 현재 영국(10.1%)과 같은 수준의 복합민족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개관할 때 한국전쟁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문화, 종교, 언어, 교육 등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동반하여 입국하고 체류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촉진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체류는 2005년 75,011명에서 2011년 4월 현재 143,646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약 91.5% 증가율을 나타낸다.⁴⁾ 또한 북한을 이탈하여 입국한 새터민 청소년도 나날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⁵⁾ 그들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써 고충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 예컨대 ‘순혈 -

1)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2004년에 통일부에서 국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선정한 대체 용어이다.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먹을 것을 찾아 새 땅을 찾아다니는 화전민을 연상케 한다는 것과 단지 먹을 것만을 찾아 남한에 온 것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과 함께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찾아 온 탈북자들의 의지를 담지 못한다는 이유로 ‘새터민’이라는 용어의 정착을 반대했다.(『《노컷뉴스》, 2007.4.17,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89785>)

2) ‘다문화’와 관련된 용어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정착 ‘다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다의(多義)·광의(廣義)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1년 4월호), 8쪽 참조.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1년 4월호), 24쪽 참조.

5)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08명(남자 6,269명, 여자 13,839명)이다. 여자가 6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3,104명으로서 16%에 달한다. 또한 20대가 5,510명으로 27%, 30대가 6,481명으로 32%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혼 후,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비중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단일문화-가부장제' 유습과 다문화간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문화적·종교적 특수성 때문에 적절한 종교적 보살핌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요 종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원불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원불교 교리와 사상에 나타난 다문화 종교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고 다문화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실태와 현황을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관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사회에서의 원불교의 역할을 조명하고 진로와 과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원불교 사상

다문화사회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불평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 또는 그 요인이 이전에 비하여 보다 더 다양해졌거나 부각된 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아울러 주류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기반을 둔 다수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에 평화스런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불평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민족과 인종, 계층, 거주지, 연령, 능력 면에서의 특수성, 종교, 언어, 성 등이 있다.⁶⁾

한국의 사회·문화 현실을 특징지어주는 대표적인 요인을 다종교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때, 다종교사회는 다문화사회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의 이해에 있어서 종교는 매우 중차대한 요인이 된다. 서로 다른 여러 종교와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만드는 방법은 해당 종교의 교리와 사상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 상관성을 갖는 원불교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소태산의 일원주의

원불교의 교조인 소태산(박중빈, 1891~1943)은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이루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6) 박상철,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 『초등교육연구』 제21집 2호(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10쪽 참조.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⁷⁾

우주 만유가 한 체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 만법이 한 근원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니, 우리 인류는 한 근원 한 이치에 말미암은 한 형제라는 것이다.

소태산은 우주 만유의 본원을 一圓相으로 상징하고, 일원상으로 상징되는 일원상 진리를 밝히는 교리 첫머리에서 “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제불 제성의 심인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⁸⁾라고 표명하고 있다. 모든 종교의 신앙의 대상이 비록 그 표현되는 말이나 상징은 다르더라도 궁극의 목적세계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일원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다.

일원상은 ……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言語道斷의 入定處다,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太極 혹은 無極이라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에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邪道라 …⁹⁾

모든 종교의 궁극적 신앙의 대상이 비록 다르게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구경에 들어가는 모두 우주 만유의 본원인 한 자리에 귀착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 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제불 제성의 본의시리요”¹⁰⁾라고 교시하고 있다. 모든 종교를 펴낸 성자들이 그 시대적 사회적 여건을 따라 각 종교의 교리·제도·방편을 달리 펴냈다 하더라도, 그 근본 의도는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¹¹⁾

김팔곤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인 모든 성자들의 깨달은 마음자리가 같고, 그 성자들이 깨우치고자 한 궁극적 진리가 같은 것이므로, 인류는 모두 하나의 진리에 바탕한 한 형제임을 깨달아 하나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에 동참하자는 것이니, 이러한 주의 주장을 일러 『일원주의(一圓主義)』라 한다”¹²⁾고 밝히고 있다.

소태산은 일원상의 도리를 알게 되면 모든 종교와의 회통이 가능함을 말하였다. 동양의 전통적 종교인 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教)도 과거에는 각각 한 분야의 교화를 위

7) 『대종경』, 제1 서품 1장.

8) 『정전』, 제2 교의편, 제1장 제1절 일원상의 진리.

9) 『대종경』, 교의품 3장.

10) 『정전』, 제1 총서편 제2장 교법의 총설.

11) 『대종경』, 제14 전망품 13장 참조.

12) 김도용, 『종교연합운동』, 『원불교70년정신사』(익산: 원불교출판사, 1989), 330-340쪽.

주로 하여 교법을 폄했기 때문에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사통오달의 대도를 성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³⁾ 기독교에 대해서도 종교 본래의 뜻에 통달이 되면 그 교를 배척하거나 질시할 수가 없음을 말하였다.¹⁴⁾

교리나 사상뿐 아니라 의식 등 모든 제도면에서 까지도 소태산은 제종교에 회통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원불교의 의식에서 성가를 부르게 한 것이라든가 정례법회를 보게 한 것 등은 기독교적 요소를 융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도자승배의 도리를 실행하기 위해 영모전(永慕殿)을 건립하고 거기에 선조들 위패를 모시고 공동기념제(共同紀念齋)를 올리는 것은 유교적 의식이 많이 수용된 모습이라고 본다.¹⁵⁾ 소태산은 일원주의를 통하여,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궁극적 진리와 목적은 하나로 돌아감을 밝히고, 일원상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로 융통·화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2. 정산의 삼동윤리

1943년(원기28) 6월 1일 소태산의 열반으로 종통을 이어 종법사의 대임을 맡은 정산(송규, 1900-1962)의 사상 역시 소태산의 일원주의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정산종사범어』 원리편 2장에서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 외에 다시 구할 것이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이 외에 다시 찾을 길이 없으며 그밖에 일체 만법이 이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라고 일원상의 진리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종교의 귀일치는 일원(一圓)이요”¹⁶⁾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데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주의는 일원주의¹⁷⁾라고 교시하고 있다. 정산은 소태산의 일원주의를 더욱 구체화하여 “한 울안 한 이치에(同源道理), 한 집안 한 권속이(同氣連契), 한 일터 한 일꾼으로(同拓事業), 일원세계 건설하자”¹⁸⁾는 삼동윤리를 제창하였다.

삼동윤리의 기본정신은 소태산의 일원의 진리에 입각해서 앞으로의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윤리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다.¹⁹⁾ 이는 다문화·다종교사회와 관련하여 핵심적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산은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니, 곧 모든 종교와 교화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 모든 종교가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하나인 것이며, 천하의 종교인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대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하게 될

13) 『대종경』, 제2 교의품 1장.

14) 『대종경』, 제14 전망품 14장 참조.

15) 류병덕, 『일원상 진리의 연구』, 『일원상진리의 제연구』(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9), 238쪽.

16) 『범어』, 제13 다운편 9장.

17) 『범어』, 제13 다운편 22장.

18) 『범어』, 제13 다운편 34-37장, 제15 유축편 37-38장 참조.

19) 김홍철, 『원불교사상논고』(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 258쪽.

것이니, 먼저 우리는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되는 일원 대도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 이 정신으로써 세계의 모든 종교를 일원으로 통일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니라.”²⁰⁾고 말하였다.

“삼동윤리의 둘째 강령은 동기연계니, 곧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 그러므로, 천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다 한 권속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며, 모든 생명들에게도 그 덕화가 두루 미칠 것이니, 우리는 먼저 모든 인류와 생명이 그 근본은 다 한 기운으로 연결된 원리를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체의 인류와 생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이 정신으로써 세계의 인류를 평등으로 통일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니라.”²¹⁾

일찍이 소태산은 四恩을 말하고 그 중에 동포은을 포함시켰다. 동포의 뜻을 해석하기를 한 진리의 胞胎 중에서 나온 일체 생명이라 규정하였고 그 안에 인류를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동포의 근원을 추구해 들어간다면 우주의 한 근원, 한 기운에서 나온 한 형제들이다. 이 원리를 알아서 좁은 국한을 초월하여 널리 화합하고 널리 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인류와 생명을 한 공동체로 알아서 힘 미치는 대로 향상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자리이타법(自利利他法)²²⁾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²³⁾에서 인류가 서로 돕는 길로서 제시되어 있으니 강약의 대립이 아닌 공동발전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기연계의 정신을 요약하면 하나의 근원에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한 기운으로 연하여진 가족이요 공동체이므로 서로 도와서 대동화합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²⁴⁾

“삼동윤리의 셋째 강령은 동척사업이니 곧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 그러므로, 모든 사업이 그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동업인 것이며, 천하의 사업가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사업이 다 ‘한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하다가 마침내 중정(中正)의 길로 귀일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먼저 이 중정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이 정신으로써 세계의 모든 사업을 중정으로 통일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²⁵⁾

동척사업은 위에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사업가와 사상가들이 다 같이 걸어가야 할 윤리

20) 『법어』, 제13 도운편 35장.

21) 『법어』, 제13 도운편 36장.

22) 『정전』, 제2 교의편, 「사은」中 「동포은」.

23) 『정전』, 제3 수행편 제13장 최초법어 中 3.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

24) 송친은, 『종교와 원불교』(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79), 557-558쪽.

25) 『법어』, 제13 도운편 37장.

를 밝힌 것이다. 동척사업이라는 말의 뜻은 함께 개척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니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는 줄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동척사업은 같은 개척사업이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개척사업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도 크다. 이렇듯 어울려서 서로 영향을 주고 고쳐주고 스스로도 개척하면서 원만한 중정의 길을 향해 나가자는 것이 동척사업의 근본정신이 된다.²⁶⁾

정산은 다음과 같이 삼동윤리의 의의를 밝혔다. “삼동윤리는 곧 앞으로 세계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의 관계를 밝힌 원리니, 장차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울안에서 벗어나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기본 강령이니라. 지금 시대의 대운을 살펴보면 인지가 더욱 열리고 국한이 점차 넓어져서 바야흐로 대동 통일의 기운이 천하를 지배할 때에 당하였나니, 이것은 곧 천하의 만국 만민이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함께 일어설 큰 기회라, 오래지 아니하여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삼동윤리의 정신을 즐겨 받들며, 힘써 체득하며, 이 정신을 함께 실현할 기구를 이룩하여 다 같이 이 정신을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이 세상에 일대 낙원을 이루고야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좋은 시운에 이러한 세상을 먼저 만난 우리 대중들은 날로 달로 그 마음을 새로이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다 같이 이 좋은 세상 건설에 선도자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²⁷⁾

이렇듯 삼동윤리는 인류의 대동화합과 평화를 위한 원리이다. 또한 하나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으니 정산의 미래세계에 대한 전망은 소태산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구 창설을 통한 삼동윤리의 실현이라는 경륜을 제시하고 있다.

3. 대산의 종교연합운동

대산(김대거, 1914~1998)은 소태산의 일원주의와 정산의 삼동윤리를 한층 더 구체화하여 종교연합운동을 제창하였다. 대산은 종법사 취임법설에서 ‘하나의 세계건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일원대도는 천하 모든 도덕의 근본이요 일체 만법의 주종(主宗)이 되며 …… 삼동윤리는 만유가 형상은 다르지만 한 진리 한 기운을 타고 전개된 것으로 …… 시방(十方)이 일가요 사생(四生)이 지친(至親)인 것입니다.²⁸⁾

26) 송천은, 앞의 책, 558-559쪽.

27) 『법어』, 제13 도운편 34장.

28)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법사법문집Ⅱ』(익산: 원불교출판사, 1980), 96쪽.

대산은 1965년부터 종교연합기구의 각종 회의 때나, 전국 각처에서 개최된 합동법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제의하였다. 1966년(원기51) ‘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힘’²⁹⁾이라는 연두법문을 비롯한 여러 법설을 통하여 종교 상호간의 융화와 종교인들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원기55) 10월 16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에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을 공식적으로 대외에 표명한 최초의 형태인 대산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³⁰⁾ 또한 1978년(원기63) 로마교황청대사 루이지 도세나 대주교 내방 환영사에서 종교 UR의 탄생, 공동시장의 개척, 심전계발의 훈련 등 3개 요목을 제시하며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참 문명세계의 건설에 앞장서자고 하였다.³¹⁾

한편, 종교연합운동에 대하여 교단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1965년(원기50) 6월,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최한 ‘한국육대종교인대화(韓國六大宗敎人對話)’에 황정신행 등 3인이 교단대표로 참석하여, 불교·유교·천주교·기독교·천도교 등 국내에 공존하는 대표적 종교지도자들과 2일간의 대화를 가짐으로써 그해 12월에 ‘한국종교인협회’가 창립되었고, 원불교가 그 6개 창립종교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71년(원기56)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개교반백년 기념대회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일원세계!」³²⁾라는 주제 아래 거행되었다. 이 식전에서는 개교반백년 기념대회 선언문³³⁾에서 4개 조항을 결의한바, “① 일체 종교를 하나로 보고, 세계를 하나로 보며,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한 일로 보는 정신을 자각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는 주인이 될 것, ② 모든 인류는 격차 없는 빈부의 균등과 차별 없는 종족의 평등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정립케 하고, 강대국 간에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며, 현대문명의 공해를 방지하여 인류평화를 추구할 것, ③ 국력의 자주적 배양을 발판으로 하여 선의의 경쟁으로써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유구한 민족의 전통적 슬기와 참됨을 바탕으로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달성하자는 것, ④ 국제적 종교연합기구를 통하여 모든 종교의 융통과 종교적 공동과제를 토의하고 나아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종교를 생활화할 것을 결의한다.”³⁴⁾는 내용이었다.

대산을 중심으로 진행된 종교연합운동의 이념을 1972년(원기57)에 발표된 「세계종교연

29) 위의 책, 114-116쪽.

30) 「세계종교자평화회의에 보내는 메시지」, 월간 『원광』 제67호(익산: 원광사, 1970.5.), 4쪽.

31) 김도용, 「종교연합운동」, 원불교창립 제2대 및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編, 『원불교70년정신사』(익산: 원불교출판사, 1980), 341-342쪽 참조.

32) 『원불교 교사』, 제3편 제5장 개교 반백년의 결실 참조.

33) 원불교 법무실, 앞의 책, 471-473쪽 참조.

34) 개교반백년기념대회선언,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월간 『원광』 제71호(익산: 원광사, 1971), 13쪽.

합 설립 취지문』³⁵⁾과 『세계종교연합 설립 선언문』³⁶⁾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종교연합 설립 선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① 과학문명을 선도할 정신문명의 추진으로 하나의 세계, 새 문명을 창설해야 된다는 정신개벽의 필요성, ② 이 우주의 진리는 하나이며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일원사상, ③ 삼동윤리, ④ 정교동심(政教同心)사상 등이 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세계종교연합 설립 선언문』에서는 ① 새로운 윤리사상의 필요성, ② 삼동윤리사상, ③ 정교동심, ④ 봉공정신, ⑤ 영육쌍전, ⑥ 도학·과학의 병진사상 등이 성문화되어 있다.

1981년(원기66)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ACRP)에서 종교연합 설립안을 제안하였으며, 1984년(원기69)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2세 방한 시 한국 종교지도자들을 대표한 환영사에서 종교연합 설립을 다시 제안하였고, 동년 8월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대회(WFB)에서, 동년 9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4차 WCRP에서 다시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1986년(원기71)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CRP에서도 ACRP나 WCRP와 같은 국제 종교 기구를 정치의 UN에 대등할 만한 종교의 UR기구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에만 그치지 않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³⁷⁾가 1990년(원기71) 12월 발족되어 정기모임 및 연구발표를 진행하고 있으며,³⁸⁾ 1991년(원기76) 소태산 대종사 탄생백주년 기념대회에는 『세계종교지도자 대화의 모임』³⁹⁾을 개최하였다.

원불교는 삼동윤리정신의 표방아래 세계적으로 아버지격인 정치적 UN이 존재하듯이 그 어머니 역할을 담당할 종교 간 협력체로서 종교연합(UR)이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모든 성자와 성현의 근본정신이 바로 우주 진리 안에서 회통하고 하나로 만나는 종교본연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와 관용을 종교 간에 먼저 실천하고, 나아가 정치적인 문제를 내조·선도하면서 전쟁과 질병, 무지와 빈곤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서 낙원 세계공동체 건설을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아래 원불교는 종교간 협력사업에 꾸준히 정성을 모아 노력해나가고 있다.

35) 월간 『원광』 편집실, 『하나의 세계』(익산: 원광사, 1987), 156-159쪽 참조.

36) 위의 책, 164-165쪽 참조.

37) 일원주의 사상과 삼동윤리를 바탕으로 종교연합운동을 추진하여 종교 간의 친선과 협력을 도모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도덕세계와 참된 문명세계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추진위원회’는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38) 원불교종교연합운동추진위원회는 1990년(원기75) 12월 12일 원불교중앙총부 대각전에서 『종교연합운동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송천은 외 2인의 연구발표와 1992년(원기76) 6월 24일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2층 회의실에서 『타종교에 대한 원불교의 태도 - 소태산 입장의 분석 -』에 대한 김성근의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이외에도 정기모임 및 초청강연회 등 종교연합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39) 1991년(원기76) 4월 27-28일 유성관광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모임은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종교 간 협력문제』라는 주제로 40여 명의 국내외 종교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 구체적 활동으로 현재 국내 종교 활동으로는 불교·유교·천주교·기독교·천도교 등과 종교협력활동을 위하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한국종교협의회·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등을 통해 종교의 울과 벽을 허물고 친목과 화합을 나누며, 모든 종교의 공동과제 실현을 위해 상호 교류해 나가고 있다. 국제적인 종교활동으로는 국제연합 비정부단체(UN 종교NGO)·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ACRP)·세계연방종교자협의회(WAWF)·세계불교도회(WFB)·국제자유종교연맹(IARF)·국제종교연합선도기구(URI)·이해의 성당(TOU) 등에 정식회원 및 개인자격으로 참가하여 국제간 종교협력 시대를 열어가면서 장차 종교연합의 탄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Ⅲ. 다문화사회에서 원불교의 역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원불교 사상은 소태산의 일원주의로 비롯되어 정산의 삼동윤리로 구체화되었고 대산의 종교연합운동으로 계승되고 있다. 유·불·도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와 회통하고 조화·융합하는 사상을 가진 원불교가 갖는 다종교·다문화의 조화와 융합사상은 현대 다문화가정에게 적용되어 국가를 넘어서 세계화를 향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다종교·다문화가 공생하는 지구촌사회로 향하는 인식전환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⁴⁰⁾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은 낯선 한국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혹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점점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일종의 ‘연대의 고리’로서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여러 종교기관을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치로서 활용한다.⁴¹⁾ 이에 착안하여 원불교는 다종교·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우려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묵묵히 필요한 임무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내외적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2001년(원기86) 9월 1일 서울시 양천구 화곡7동에 원불교 최초의 외국인을 위한 센터가 마련되었다. 스리랑카 교화를 목적으로 준비하던 최서연 교무⁴²⁾는 당시 한국에 체류하

40) 조웅태, 『한국 신종교의 개혁사상과 다문화가정』, 『신종교연구』 제21집(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09), 158쪽 참조.

41) 유기쁨, 『결혼이주여성들과 종교』, 『다문화사회의 종교를 묻는다』(서울·성남: 한국종교문화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10, 64-65쪽 참조.

는 외국인들이 50만 명에 이르고 이들 중 30만 명이 노동자들이라는 보도를 듣고 스리랑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열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의료문제 등에 대해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을 알게 되었고, 원불교에서도 이들과 함께 해야 할 일임을 느껴 스리랑카로 출국하려는 계획을 수정하여 서울외국인센터를 열게 되었다.⁴²⁾ 현지교화보다는 제3세계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며 이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아래 현지교화를 포기하고 방향선회를 한 것이다.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어교실(기초~중급), 컴퓨터교실, 초등학교 과정(국어, 수학, 음악), 한국문화체험(연극, 연주회, 여행), 상담(진로, 육아 및 교육, 가족 갈등 등), 다문화 알리미 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지원 또는 장학금유자를 통해서 해외 인재양성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원기90) 10월에는 서울외국인센터 지붕에 3KW급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대체에너지 개발과 환경운동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6년(원기91)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이주여성 정보화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좀 더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이주민 여성을 위한 기관인 ‘강서양천 이주여성의집’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정책네트워크와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와 연대활동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차별에 대응하는 인권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것이다.

한편, 전북 남원시에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설치하여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중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주말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센터를 찾아와서 교육 및 상담을 받고 있다.

2. 원불교여성회와 한울안운동

원불교여성회에서는 결혼이주민여성과 여성회원의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친정엄마·이모되기’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문화적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친정엄마·이모되기’ 운동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고부갈등, 혼수문제, 저출산문제, 환경이야기, 다문화이야기 등을 주제로 하는 연극 활

42) 최서연 교무의 부모님은 가톨릭 신자이고 여동생은 수녀이다.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는 돌아가신 최 교무의 부친이 직접 지은 3층짜리 건물이다. 어머니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딸을 위해 이 건물을 내주었다.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가 다종교사회의 열린 마음을 가진 가족의 후원으로 시작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이채롭다.

43) 《원불교신문》 제1124호, 2001년(원기86) 11월 2일 참조.

동도 펼쳤다. 이러한 운동은 다문화가정의 빠른 정착과 화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⁴⁴⁾ 또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리말이 서툰 자녀들에게 동요 부르기, 동화 읽기 등 우리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모되기 운동’을 통해 맺어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어느 며느리들처럼,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데 노력한다. 그들은 결혼생활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원불교여성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창된 한울안운동은 우리 모두가 한 울타리 안에 사는 한 식구라는 뜻을 바탕으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한울안 한집안의 한식구’로 껴안기 위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02년 3월 5일 사단법인 한울안운동(대표: 한지현)을 창립하면서 전개되었으며, ① 인류 공동선 실천을 위한 종교연합운동 ② 전 지구적 상생사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③ 공동체사회 실현을 위한 함께 살기 운동 ④ 한울안 아카데미를 통한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터민을 위한 통일김장 담그기·송년의 밤·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전국결혼이민자 여성 우리말대회 개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초록디딤돌학교와 해외입양청년 초청 모국방문행사 등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원불교의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편견과 인종차별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다문화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돕고 있지만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는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전담기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⁴⁵⁾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면서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불교에서는 전라북도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고세천 교무)는 11개국 120여 명의 이주여성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남원의 대표적 이주여성 교육기관이다.

먼저 결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 여

44) <다문화가정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야: 광주전남교구 이모되기 결연운동, 이주여성에게 도움>, 《원불교신문》 제1490호, 2009년 9월 11일; <다문화가정과 함께 전통음식 만들기: 광주전남교구 여성회, 결혼이주여성들과 이모맺기운동 활발>, 《원불교신문》 제1512호, 2010년 3월 5일; <친구 같은 이모되기: 부산교구 여성회 이모 맺기 결연식>, 《원불교신문》 제1556호, 2011년 2월 18일.

45)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을 말한다.

성의 평균연령은 27세이고,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이 많으며, 출신국별로 연령, 체류기간, 교육정도, 및 종교에 차이가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은 20대 연령에 체류기간도 2년 이내에 입국한 여성이 많고,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 종교는 불교가 많다. 가족관계나 결혼만족은 긍정적이었다. 일반적 교육욕구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달랐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학생)는 2006년 7,998명에서 2007년 13,445명으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18,778명, 2009년에는 24,745명, 2010년에는 30,04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⁴⁶⁾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 78.6%, 중학교 16%, 고등학교 5.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 가운데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의 수는 22,264명으로 90%에 달한다.⁴⁷⁾ 그러나 여성결혼 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등 교육 여건은 열악한 형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어에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으로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등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이들이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에 가지 않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많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약 20%, 고등학교의 경우 약 30%가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분 노출 위험, 경제적 사정, 학교에서의 배타적 분위기를 이유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2세 교육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과 언어 및 문화교육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를 연계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상담과 심리치료, 멘토 결연 등으로 왕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의 다문화이해교육을 돕기 위해서 학교순회교육을 병행하고 엄마나라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해외기업인턴활동 등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며 세계시민

46) 향후에도 높은 출생성비로 인해서 신부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국제결혼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다문화 아동청소년 수도 당분간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10만 7천 명, 2020년에는 14만 2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134쪽 참조.

47)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학생)는 2006년 1,391명이었고 2010년 1,748명이다. 하지만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2005~2010 다문화 청소년 현황』 통계자료 참조.

〈표 1〉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
가정교육팀	○ 결혼이민자여성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여성 2세 방과후 학습지도 ○ 가정문제 예방 및 가족 해체방지 교육 ○ 가정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교육
가정상담팀	○ 결혼이민자여성 가족상담 ○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 가정기능 강화상담 ○ 가정생활주기별 상담
가정문화팀	○ 결혼이민자여성가족 사회통합교육 ○ 가정생활 문화운동전개 ○ 가족 공동체 운동 확산 ○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용관리 ○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

으로서 품행과 자질을 익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경기도 연천군에 개소한 ‘행복한 우리집 상담소’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청소년 소원성취프로그램 지원사업
2.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아동상담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및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다다우친”⁴⁸⁾
4.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5.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향상 프로젝트; “연천군 개구쟁이들의 행복한 어울림”
6.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향상과 다문화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푸른 꿈 행복 날개”

4. 삼동인터내셔널

2008년 12월 10일 외교통상부 허가 607호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삼동윤리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복지와 평화구현에 이바지하는 국제구호단체이다.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삼동’의 설립취지를 바탕으로 국제구호활동을 위해 출범하였다. 인도, 네팔, 캄보디아, 아이티, 미얀마, 몽골 등 어려운 지구촌 가족들에게 무료급식, 우물

48) ‘다양하고 다른 우리가 친해지는 시간’의 줄임말이다. ‘원래 우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는 원불교 교리에 입각하여, 자신이 부처이며 은혜로운 존재임을 깨달도록 하는 정서적 훈련이 중심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는 누구인가?’(자기조망), 부모와 나(의사소통), 친구와 나(공감과 수용), 선생님과 나(타인조망), 집단에서의 나(사회적자아), 새로운 나(자아존중감, 문화정체성)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파기, 학교지원 사업, 긴급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구호활동과 아울러 모든 문제해결의 근본이 되는 인재양성 부분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을 통해 저개발국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학생이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 개발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외국인 유학생회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IV. 새터민 청소년과 종교교육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원불교의 종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원불교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교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교육기관으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한겨레중·고등학교를 꼽을 수 있다.

새터민들의 입국은 북한의 경제난, 남한사회의 동경, 신변상의 위협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국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 1,000명대를 넘어서고 2006년에는 2,000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2,544명으로 늘어났다. 통일부의 자료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각각 다음 <표>와 같다.

<표 2> 새터민 입국현황(~'10.11월 입국자 기준)

구분	남(명)	여(명)	합계(명)	여성비율
~'98	829	118	947	12%
~'01	563	480	1,043	46%
'02	506	632	1,138	55%
'03	469	812	1,281	63%
'04	626	1,268	1,894	67%
'05	423	960	1,383	69%
'06	509	1,509	2,018	75%
'07	570	1,947	2,544	78%
'08	612	2,197	2,809	78%
'09	666	2,261	2,927	77%
'10.10	496	1,628	2,124	77%
합계	6,269	13,839	20,108	69%

〈표 3〉 새터민 연령별 유형(∼'10.11월 입국자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누계(명)	777	2,327	5,510	6,481
비율	4%	12%	27%	32%

구분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누계(명)	3,136	965	912	20,108
비율	15%	5%	5%	100%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나 매매혼 등으로 인권유린을 당한 측면이 많은 반면에 중국 현지인 남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체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내에서의 장기적인 체류가 불가능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비율이 69%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새로 결혼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으로 비롯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다문화가족이 출현하지만 구체적인 통계조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아울러 만 6세에서 만 20세 이하의 새터민 청소년의 수는 2009년 4월 기준 1,478명이다. 1999년에는 19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부터는 10배 이상 증가하여 2005년부터는 연평균 315명 정도의 학령기 새터민들이 입국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새터민 가운데 약 12%에 달하는 청소년의 교육문제가 새롭게 부각된다.⁴⁹⁾ 이들은 한국사회와 정체체제 및 경제체제의 다른 점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터민 청소년들의 교육부적응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원불교 관련 학교법인 전인학원은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⁵⁰⁾ 한겨레중·고등학교는 다

49)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 대책은 현안위주의 단기적인 대응으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이 부족하였다. 초기 적응교육 단계에서부터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지원이 미흡하여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취학률은 낮은 편이다. 이들의 취학 현황을 보면 연령과 학령이 2~3년 정도 차이가 있어서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309쪽 참조.). 이들이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한 경우에도 대부분 독특한 억양과 문화적 충격,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친구들과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어 결국 학교를 자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2006년에서 2008년 3월까지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률은 평균적으로 일반학생의 6배에 이른다.

50) 대안학교는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과 중도탈락자 등이 새로운 형태의 특성화 교육을 받는 인간적 교육장이다. 원불교가 사실상 국내 대안교육의 산파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1997년(원기82) 영산성지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입법에 의해 국내 최초의 특성화학교로 탄생하였다. 이어 화랑고등학교(경주)·원경고등학교(합천), 지평선고등학교(김제)가 생겼고, 수도권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현산중학교(용인)를 비롯해 지평선중학교(김제)·성지송학중학교(영광)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도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설립되었고,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2009년부터 ‘결혼이주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사회와 원불교의 종교교육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적합하면서 특별한 대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터민은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이주의 사례로서 단일민족이라는 혈연적 공통성과 더불어 분단의 현실로 인한 문화의 이질성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착안하여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중요사항을 개관하고 학교현장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겨레중·고등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는 그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남한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원불교의 교육은 새터민 청소년에 대해서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교육기관이 2006년 3월 1일 개교한 한겨레중·고등학교이다.⁵¹⁾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08년 1월 21일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청소년반 전면위탁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새터민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성화학교라고 평가받는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디딤돌 교육기관으로서 남한의 일반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공통기본교과 체제에 따라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남한 학교에 편입학하기 전에 남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개교 이래 2011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128명의 한겨레중·고등학교 졸업생이 배출되었다.⁵²⁾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은 “①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함양, ② 학령 및 학력 결손과 격차 극복, ③ 심리·정서적 치료 및 안정, ④ 남한사회의 원만한 적응, ⑤ 잠재적 특기적성 계발로 자력양성”이다.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건학이념

본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탈북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한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 충격을 적절히 소화하여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학습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교육체제에서의 학습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학령과 학력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북한교육의 특징을 파악하여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자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1) 한겨레중학교와 한겨레고등학교의 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2010년 2월 10일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정원	20	20	40	80	40	40	40	120	200
현원	5	31	30	66	42	43	46	131	197

52) 1회(2007년 2월) 5명, 2회(2008년 2월) 16명, 3회(2009년 2월) 18명, 4회(2010년 2월) 46명, 5회(2011년 2월) 43명이 배출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와 제도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 잠재된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 교육과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안교육 현장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다.

교육목표

본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목표로 한다.

- 1) 인류가 가진 편견을 버리고 세계의 뿌리와 근원이 같음을 알며, 대동화합하여 평화와 상생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통일 교육
- 2)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공동체 교육
- 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장기적인 학습공백을 메우고 남한의 교육체제 내에서 원만히 학습하여 학령과 학력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자율학교 특성화 교육
- 4) 탈북과정의 심리적 상처와 발달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인성교육과 정서적 안정 및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교육
- 5) 통일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게 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교육
- 6)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자율과 책임을 깨달도록 하며, 새로운 사회질서 및 규범을 익혀 민주 시민으로 성숙시키는 교육
- 7) 잠재적 문화 역량을 개발하여 남한 사회와 제도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 8) 건강한 심신의 조화와 기본학력의 정착으로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고 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주적 교육을 목표로 한다.⁵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겨레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사회적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이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사회의 규칙과 관습, 생활양식 등을 존중하고 적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보존육구와 새터민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심정적 유대감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잘 동화되기를 바라는 동화육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⁵⁴⁾ 새터민 청소년들 역시 기존의 한국인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보편적인 한 개인으로서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기 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회의 주류집단에 참여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동화육구를 보이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교육성과의 측면에서 한겨레중·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師弟同宿)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적응교육의 수월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

53) 한겨레중·고등학교, 『2010학년도 교육계획』, 2010,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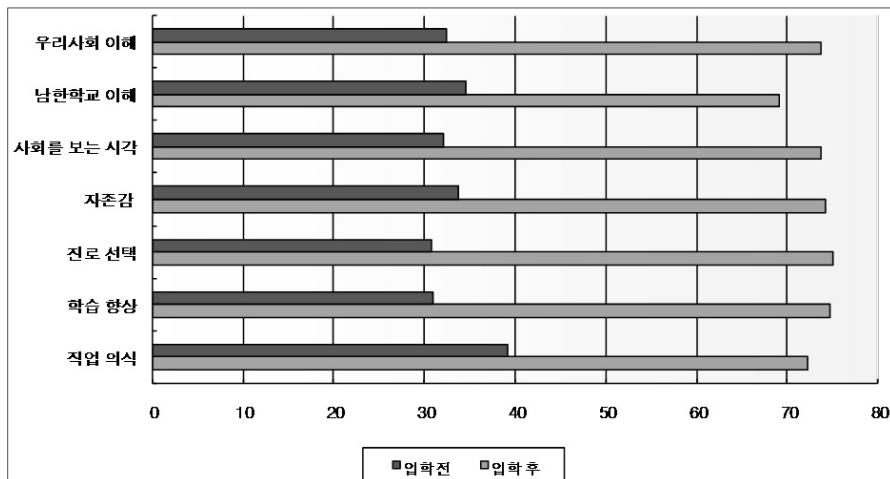
54)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12-13쪽 참조.

육과정 운영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학력 향상도 현격하게 잘 이루어진다. 남북한 청소년의 통일 어울림 행사(가정파견, 교류 학생) 등으로 새터민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이 해소되었으며, 정기적인 지역사회교류와 민간사회단체 통일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주민 등의 이해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를 통하여 새터민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학교 교육을 위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 교재 개발, 교수학습방법개발센터를 경영하고 지역사회 새터민지원 네트워크 형성(생활지원, 경제지원, 부모가족결연, 취업우선보장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⁵⁵⁾

2.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특성화학교로서 “① 학생중심·실천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② 심신수련을 통한 원만한 품성의 함양, ③ 인성중심의 열린교육으로 문화통합, ④ 공동체생활 및 자연친화적 살림 운동, ⑤ 가정을 대신하는 학교, ⑥ 교육방법 개선과 새로운 평가모형 개발”을 특성화의 기본방안으로 한다. 따라서 특성화 목적에 부합되는 교과목을 계열에 관계없이 설치하고 선택하며, 특성화 목적에 부합되는 과목에 대한 학습도서를 구비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학교로서 “① 다양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②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소질개발, ③ 다양한 심성개발학습의 활성화를 통한 조화로운 인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교

55) 학생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생활과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98%를 나타내고 있다(권이중,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 통일부·(사)한국청소년연합, 2008, 27쪽 참조). 아울러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2010년에 실시한 입학 전과 입학 후 학생 만족도 변화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한겨레중고등학교, 『2010학년도 학교교육계획』, 10쪽 참조.).



육과정을 각각 살펴보면 아래 〈표 4〉, 〈표 5〉와 같다.⁵⁶⁾

〈표 4〉 2010학년도 한겨레중학교 교육과정 중 ‘종교’과목 편제표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기준	실시	기준	실시	기준	실시
재량 활동	교과 재량	선택 과목	34	보건/종교 (택1)	34	컴퓨터/종교 (택1)	34	컴퓨터/종교 (택1)
			34	컴퓨터				
	창의 재량	국민공통 심화 · 보충	34	영어	34	국어	34	수학
		범교과 학습	34	원예치료	34	원예치료	34	원예치료
		자기주도적 학습	(34)	음악치료/ 미술치료(택1)	(34)	음악치료/ 미술치료(택1)	(34)	도자기/ 종이공예(택1)

〈표 5〉 2010학년도 한겨레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종교’과목 편제표

구분				기준단위	이수단위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단위계
영역		과목 · 내용				1	2	1	2	1	2	
특성화 교과		학교선택	마음공부 외	24	24	0	0	4	4	8	8	24
		학생선택	검도 외	12	12	0	0	4	4	2	2	12
		소계		36	36	0	0	8	8	10	10	36
재량 활동	교과 재량	선택과목	보건	4-6	택1 (4)	2	2					4
	종교											
	창의적 재량	범교과	마음찾기	(34)	(34)	(17)	(17)					(34)

한겨레중학교의 교과재량활동 선택과목은 1학년의 경우 ‘보건’ · ‘종교’ 중 택일이고,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컴퓨터’ · ‘종교’ 중 택일이다. 아울러 한겨레고등학교의 교과재량활동 선택과목도 ‘보건’ · ‘종교’ 중 택일이며, 창의재량 범교과 학습으로 ‘마음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재량활동 운영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다양한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 선택권을 반영한다. ②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산학겸임교사의 전문적인 교육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③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 발현 및 재량권을 확대한다.”⁵⁷⁾

56) 〈표 4〉와 〈표 5〉에 자기주도적 학습과 마음찾기 과목의 기준단위와 이수단위 괄호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과목을 개설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겨레중 · 고등학교는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지정된 시간 이상의 특성화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7) 한겨레중 · 고등학교, 「2010학년도 교육계획」, 116쪽 참조.

새터민 청소년들은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 보다는 교육 및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종교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원불교의 신앙을 전혀 강요하지 않고 순수한 ‘타자녀교육’⁵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함에 있어서 고통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 착안하여 수립한 교육목표에서 기인한다.

특히 새터민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개신교 성직자 및 기관·단체의 협조와 후원으로 탈북·입국한 관계로 입국 전에 이미 심도 있는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은 경력이 있다. 또한 원불교를 포함한 여타 종교에 대한 이해부족과 선입견 및 오해로 인한 불만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진로”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 종교담당 교사의 면담에 의하면, “처음에 입학하는 학생 가운데 약 25%가량의 장래희망이 목사·전도사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은 물론이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이라는 용어도 꺼내기가 부담스럽고 괜한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한다. 또한 “직업 선택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성경 지식’이라고 대답한 사례도 주목된다.⁵⁹⁾

그러므로 이렇게 종교 수업에 대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한겨레중·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은 종교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시청각 교재 중심의 수업과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즉 단순히 종교를 소개하거나 원불교의 교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한국의 다양한 종교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실제 지도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종교교과 학습지도계획을 소개하면 <표 6>과 같다.

58) 타자녀교육은 원불교의 주요교리 ‘사요(四要)’ 중 하나로서,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을 강령으로 한다(『정전』, 제2 교의편, 제3장 사요, 제3절 타자녀교육 참조.).

59) 권이중,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통일부·(사)한국청소년연합, 2008), 77-79쪽 참조.

〈표 6〉 2011학년도 1학기 한겨레중학교 종교교과 학습 지도계획

월	주	시수	단원
3	1	1	종교란 무엇인가?
	2	1	종교의 발생 기원
	3	1	세계의 종교란 무엇인가
	4	1	우리나라 종교의 기원
4	5	1	불교의 기원
	6	1	통합수업
	7	1	불교의 기본 교리
	8	1	싯다르타는 누구인가?
5	9	1	종교 탐방(불교 - 칠장사)
	10	1	가톨릭의 역사
	11	1	가톨릭의 기본 교리
6	12	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13	1	개신교의 역사
	14	1	부활절의 의미
	15	1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7	16	1	종교 탐방(가톨릭 - 죽산성당)
	17	1	종교 탐방(개신교 - 죽산교회)
	18	1	종교와 나의 관계(토론)
〈유의사항〉 1) 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 입장에서 접근한다. 2)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노력한다. 3) 종교탐방 차량이동시 안전에 유의한다.			

종교 교과교육이 특정 신앙교육 또는 교리교육으로 교수하면, 그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그 교육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도 학생들의 다양성 인정, 다양한 신앙의 자유 보장,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로 ‘종교’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창작 교재가 활용된다. 의외로 ‘종교’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적고, 영상물⁶⁰⁾을 공동 관람하고 토론하거나 교과서 보다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러 종교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배려 차원에서 각 종교기념일을 즈음하여 종교기관 방문을 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교육을 교실이 아닌 현장 체험학습으로 진행함으로써 다종교사회의 실재를 경험하고 눈높이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60) 2011학년도의 종교 수업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종교의 영상물(영화·다큐멘터리) 관람 및 토론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교의 ‘티벳에서의 7년’, 기독교의 ‘십계’, (MBC다큐멘터리) 원불교의 ‘비닐하우스 성자’, ‘이슬람교의 문화’ 등이다.

취득하게 된다. 체험학습과 교실수업을 연계한 통합수업 교육과정 운영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의 학습의욕 증대 및 한국문화 적응효과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1항⁶¹⁾에 따라 자연현장실습과 같은 체험교육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로 인가되어 있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9년 12월 23일, 제7차 개정교육과정이 다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새로 고시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창의적 체험활동(비교과활동) 도입,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배려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⁶²⁾ 따라서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창의적재량활동) 가운데 창의적 재량활동에 원불교 관련 교육프로그램(마음공부, 마음찾기)을 포함시켜 수업을 진행한다. 전반적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하여 극히 불안해하고 걱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사회부적응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착안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터민 청소년들의 상담과 인성함양을 위한 시간으로 운영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 강화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한겨레중학교 종교교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계획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 사항은 크게 보아 네 가지이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대응시켜 볼 때 몇 가지 면에서 개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덧붙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터민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과정과 내용, 수업방식을 포함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물론이요, 방향성과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행 학습 지도계획은 종교에 대한 기본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한국의 종교와 문화에 착안하여 지역사회의 종교들을 탐방하는 종교학적 종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단순히 여러 종교에 대한 이해와 탐방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7차 종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다종교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지만 종교 과목의 내용에 다문화·다종교적 요소를 포함했다고 해서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종교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터민 청소년들의 눈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시대의 바람직한 종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 청소년들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며 삶과 죽음의 문제를 탐구하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 수업을

61)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62) 고병철, 「학교 내 종교차별 기준 설정 연구」(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10), 18쪽 참조.

전개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⁶³⁾

둘째,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의 실행을 위한 종교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조직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이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수·학습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다문화 종교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종교(원불교)』 교과서가 아닌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 청소년들의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종교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에 대한 이해부족과 특수한 경험을 감안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종교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⁶⁴⁾ 그러한 교재가 개발된다면 새터민 청소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에도 많은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예컨대 다종교사회에 대한 새터민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종교의 특성, 관습, 축일, 의례 등을 소개하는 기초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종교교육에서 중시해온 가치·덕목들과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성과의 상호 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내용 선정 및 구성을 새롭게 시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종교교육이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사회의 요구와 미래 사회의 비전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종교교육(multi-cultural religion education)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문화 종교교육은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교육의 이상을 종교교육에 적용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 문화적 다양성·사회정의·공평·배려·공감·인간존중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능동적·반성적 참여자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적 시민성의 구성요소들을 종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단순히 부가하여 가르치는 차원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시간이 부족한 교사에게 교과수업과 학생지도 이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 방안으로 현장중심 맞춤형 종교교육을 시도하기 위한 ‘(가칭)한국종교문화 체험캠프’를 방학기간 중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종교에 대한 교육을 팀티칭으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2009년 8월에 설치된 한국

63)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교양』(2009), 134쪽 참조.

64)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과정에서 학습공백이 장기화되고 언어적 사상적 이질감이 발생함에 따라 새터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종, 2007년 17종, 2008년 17종, 2009년 4종이 있다. 교과목별 교재개발 현황은 국어 18종(기초학습교재, 수업보조교재), 영어 6종(수업보조교재, 수준별 보충교재), 수학 7종(수준별 수업 보조교재), 과학 2종(수업보조교재), 역사 1종(수업보조교재) 컴퓨터 1종(방송통신윤리교재), 기타 6종(생활지침서, 예비과정교재)이다.

교육개발원 산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종교문화체험교육, 리더십함양 프로그램, 일반가정 - 탈북가정 자매결연, 자녀 - 학부모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모색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교사가 다문화·다종교적 능숙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능숙함이란 다문화·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식, 기능, 성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는 종교교사 양성과정에서 그러한 능숙함을 갖춘 종교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문화적 다원성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족·문화·인종·종교 등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추해 보고, 그러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종교교사 양성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다문화주의와 종교학의 상관성, 다문화주의와 종교교육의 상관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력을 갖추게 하고 동시에 다양성의 인정 및 존중 방안, 갈등 해결 방안, 반편견 교수 전략, 문화 감응 교수방법, 학생들의 학습 양식 및 기능 수준에 맞춘 수업 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다문화 종교교육 전략을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새터민 출신 종교교사를 양성하여 새터민이 주체가 되는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V. 맺는말

우리는 다문화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교교육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변혁적이고 비판적인 종교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종교교육을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본고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원불교의 관점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에 대하여 정리한 연구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대한 원불교의 교리적 근거는 소태산의 일원주의, 정산의 삼동윤리, 대산의 종교연합운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처불상(處處佛像)·사사불공(事事佛供), 동포보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등 다문화사회의 주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원불교의 특색이 드러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 따라서 원불교 교도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주민과 다문화사업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원불교 단체와 교도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17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⁶⁵⁾ 그 중에서 원불교 관련 센터는 4개소(군산, 남원, 무주, 정읍)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전라북도에 편중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다문화사회의 지향을 위해 필요한 주된 방법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종교교육은 종교관련 편견과 갈등의 해소, 상호 공존을 위한 방법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와 관련한 원불교의 종교교육에 주목하면서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은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남북한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반편견적이고, 개방적인 수용의 태도를 갖도록 준비시켜주는 다문화·다종교사회의 종교교육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다양한 종교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이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화 교육’과 한국의 종교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전달과 체험학습을 위주로 하는 ‘한국전달교육’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종교교육과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과정과 내용, 수업방식을 포함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물론이요, 방향성과 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둘째, 종교교육의 실행을 위한 종교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조직에 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이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종교교육에서 중시해온 가치·덕목들과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성과의 상호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내용 선정 및 구성을 새롭게 시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넷째, 다문화·다종교적 능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종교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한편 원불교에서는 2011년 ‘다문화특성화중학교 기관설립계획’을 승인하고⁶⁶⁾ 학교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결정을 내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그 학교에서 시행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후일의 과제로 기약한다.

65) 서울 20개소, 부산 7개소, 대구 6개소, 인천 7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3개소, 경기 24개소, 강원 12개소, 충북 10개소, 충남 15개소, 전북 14개소, 전남 16개소, 경북 16개소, 경남 14개소, 제주 2개소이다.

66) 원불교 교정원, 『제113회 임시원의회 결의록』(2011년 2월 28일), 결의3 참조.

참고문헌

- 강성열 외, 『다문화사회와 한국교회』, 한들출판사, 2010.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4—교양』, 2009.
- 권준희 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2010.
- 김홍철, 『원불교사상논고』,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
- 원불교 정화사 편, 『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2009.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동녘, 2010.
- 한국종교문화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다문화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2010.
- Sacks, Jonathan, 임재서 역,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 말글빛낸, 2007.
- 강희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국가정책연구소, 2006.
- 고병철, 「한국의 종교교육: 중등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46집, 한국종교학회, 2007.
- _____, 「학교 내 종교차별 기준 설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10.
- _____, 「국가 교육과정 내의 다문화교육과 ‘종교’교과교육—다문화사회와 다종교사회의 연관성과 함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61집, 한국종교학회, 2010.
- 권이중,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 통일부·(사)한국청소년연합, 2008.
- 김귀성, 「한국의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불교계와 원불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7.
- _____, 「광복 후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전개와 쟁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45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10.
- 김도용, 「종교연합운동」, 『원불교70년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 김중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문제—특히 이슬람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6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 김지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와 교육」, 『철학연구』 제106집, 2008.
- 김홍운·김두정,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 제34권 제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류병덕, 「일원상 진리의 연구」, 『일원상진리의 제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9.
- 박상철,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 『초등교육연구』 제21집 2호, 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 송천은, 「한국종교간의 회통을 위한 몇 가지 논거」.
-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제59집, 한국종교학회, 2010.
- 안 신,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영국과 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3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_____, 「기독교와 현대종교교육: 영화의 상상력과 다문화 종교교육—영화에 나타난 예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3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양은용, 「원불교에서 본 종교간의 대화원리」, 『한국종교연구』 제4집, 2002.

- 오명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유기쁨, 「결혼이주여성들과 종교」, 『다문화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10.
- 윤옥경·김경화, 「새터민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의 다문화교육적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 2009.
- 윤이흠, 「다문화문화 속에서의 종교 교육」, 『종교연구』 2, 한국종교학회, 1986.
- 이슬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종교교육적 접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원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태도 연구: 북한이탈주민 관련 복지/종교/NGO단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정우,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성과와 과제」, 한국법교육학회, 2007.
- 이종민,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종교교육 가능성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찬수, 「국내외 종교간 화합사례와 효과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 장문강,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8.
- 장세면, 「새터민 청소년을 통한 학교 통일교육 방안」,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6.
- 정보미,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결혼이주가정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종훈, 「탈북 새터민들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역할 모색」,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10.
- 정진경·조정아,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14, No.1, 2008.
- 정환희, 「다문화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웅태, 「한국 신종교의 개혁사상과 다문화가정」, 『신종교연구』 제21집, 한국신종교학회, 2008.
- 최정혜,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분석: 2005년-2010년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22집,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0.
- 한건수, 「다민족사회의 종교 갈등과 정체성의 정치」, 『종교문화연구』, 한신인문학연구소, 2010.
- 《노컷뉴스》, 2007.4.17,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89785>
- (사)삼동인터내셔널, 〈인류는 한 가족〉, 2011년 4월.
- 《원불교신문》 제1124호, 2001년 11월 2일.
- 《원불교신문》 제1490호, 2009년 9월 11일.
- 《원불교신문》 제1512호, 2010년 3월 5일.
- 《원불교신문》 제1556호, 2011년 2월 18일.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계획」, 201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4월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2009.
- 삼성경제연구소,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CEO Information』 제756호, 2010.5.19.
- 원불교 교정원, 「제113회 임시원의회 결의록」, 2011년 2월 28일.
- 원불교 법무실, 『대산종법사법문집 II』, 원불교출판사, 1980.

원불교신문·원음방송, 「다문화 공존시대, 종교의 역할」, 2009.

원불교정책연구소, 『새미르통신』 Vol.5, 2009년 10월.

월간 『원광』 제71호, 원광사, 1971.

월간 『원광』 편집실, 『하나의 세계』, 원광사, 1987.

한겨레중·고등학교, 『2010학년도 교육계획』, 2010.

원고접수 : 2011년 6월 21일 1차 심사 : 6월 28일 게재승인일 : 7월 11일

연구자소개 : 고시용

① 전공 : 원불교학 / 소속 : 원광대학교 조교수

② 관심영역 : 한국종교, 원불교교육학, 원불교경전해석학

③ 주요논저 : 「원불교 연구의 최근동향과 과제」, 「원불교의 혁신예법과 예전의 사회적 성격」, 「불교정전의 성립과 특징」, 「정전의 결집과 교리의 체계화」, 「원불교대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연구」, 「원불교 설교에 나타난 마음공부」, 「원불교교전에 나타난 교화방법」, 「원불교교리형성과 도교사상」, 「원불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재」, 「예비전무출신 교육교재 개발」, 「원불교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클릭 원불교』(공저2), 『종교(원불교)』(공저)

④ E-mail : kwgksy@wku.ac.kr

Abstract

Won-Buddhist Religious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Ko, Shiyong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the *Won*-Buddhist perspective for a multi-cultural society. *Won*-Buddhism offers a number of relevant doctrinal grounds for religious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re are the way of Il-Won of Sotaesan, the Ethics of Triple Identity of Chungsan, and the United Religions movement of Daesan. In addition, ‘Everywhere a Buddha Image, Every Act a Buddha Offering’, ‘Gratitude to Fellow Beings’, and ‘The Essential Dharmas Regarding How the Strong and the Weak May Evolve’ present the necessary mental attitude and preparation for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the subject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such as foreign labor, immigrant women, saeteomin, who are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so on.

In particular, I examined the programs of Hangeore Middle & High School as examples of the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in relation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As a consequence,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school can be evaluated as a proper educational program in the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society. It is then possible to assess its role in helping the young generations of Saeteomin to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 that they can find an unbiased acceptance and open-hearted attitude,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Based on my examination of these programs, I make certain suggestions related to religious education for the young generations of saeteomin, as follows: First, religious educators should clearly institute an educational direction and tasks, and suggest an appropriate educational purpose, curriculums, contents, and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including teaching guidelines. Second, religious educators should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urriculums, and the subjects and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textbooks for religious education, by themselves. Third, religious educators need to renew the selection

and configuration of programs toward elevat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ose valuable virtues that are emphasized in the religious education and citizenship, for example, social responsibility and mutual communication, required by a multi-cultural society. Fourth, religious educators should cultivate teachers who are skillful in providing religious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context.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ulti-religious Society, Won-Buddhism, Religious Education, The way of Il-won, The Ethics of Triple Identity, United Religions, North Korean Young Defector, Hangeore Middle & High School